

# 보살의 길

2012년 가을호 제50호



넷째주 금요일 찬불가 배우기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문금자 조리원

## 퇴직을 앞두고

혜명양로원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5년도였습니다. 옆집아줌마의 소개로 일하게 된 혜명양로원.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금만 있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제 정년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원장님, 사무국장님이 무엇보다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이곳이 좋아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리를 하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맛있게 잠수셨다고 얘기들을 하시면 마음이 흐뭇해지곤 했습니다.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곳에 대해 느낀 점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정말 잘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이곳저곳 여행도 모시고 가고 극장에서 영화 구경도 시켜드리고 삼시세끼 따뜻한 음식에 빨래도 다 해드립니다. 물론 청소 목욕까지 불편 없이 다 성심을 다해 잘 해드립니다. 직원들은 고되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불편 없이 잘 해드리는 모습이 나중에 저도 이곳에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주방에 영양사 선생님도 항상 메뉴에 신경 많이 쓰시고 깔끔하게 잘하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긴 시간을 함께한 혜명양로원을 이제 올 12월이면 떠나게 됩니다. 아쉬움 반 가쁜한 마음 반입니다.

시설에 입소해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들 건강하시고 원장님 이하 사무국장님 함께 일하신 직원들 주방 식구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21년 근무를 마감하며



윤춘옥 간호사

20년 동안 아니 정확히 21년 동안 혜명양로원 어르신들과 동고동락 하면서 흔히 말하는 희로 애락도 많았고 잊지 못할 일도 많았지만~~~  
 제일 마음 아프고 기억에 남는 일을 꼽는다면~

하루에 일과를 무사히 마침을 감사하며 막 잠든 새벽 3~4시 따르릉 전화 벨 소리에 깜짝 놀라 받으면 "000어르신 위독하십니다." 할 때는 연세 상관없이 놀라고 서운함은 똑 같은 것 같다.

비몽사몽 눈비비고 일어나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가 운명 하실 때까지 지켜드린 후 원으로 모셔와 영안실에 안장 시켜드리고 법당에 상 차린 후 술 한잔 올려 드리고 나면 가슴이 찡하다

그런가 하면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고 막 잠들려는 찰라 따르릉 응급환자 발생 했다는 호출 전화~ 그렇게 다급한 상황은 이상할 만큼 한 밤중이나 새벽에 많이 생긴다.

그렇게 돌봐드리며 20년 세월 큰 사고 없이 오늘날 까지 오게 된 것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세월이 갈수록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어르신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내가 입사할 당시(1991년) 그전부터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도 몇 분 계신다.

그분들은 가끔 "간호사 있을 때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을 대할 때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직 건강하신데 오래오래 더 사셔야지요." 하고 말씀드리곤 한다.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서운하고 섭섭한 적도 많았으리라 생각한다.

이 기회에 혜명양로원 어르신들 모두에게 서운하고 섭섭하셨던 점 사과드리고 싶고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탁 명 식  
(서울사이버대학교3년)

## 혜명양로원 실습을 마쳤습니다!

시흥동에서만 60년이 넘게 살았기에 금천구 토박이라고 생각하며 누구보다 내고장 사정은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해 왔다.

하지만 길가를 지나며 무심코 담장안의 건물을 보며 그저 혜명양로원 “아! 거기있지” 정도였다.

그러던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현장실습이 요구되어 혜명양로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실습을 시작하며 혜명양로원엔 어떤 상태의 노인들이 계시는지조차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 조금은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명양로원은 65세 이상 거동이 자유로우며(동외판정)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생활하며 가족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시도록 돕는 주거복지시설이었습니다.

시설의 청결은 너무 깨끗했으며 어르신들의 목욕을 지원해주며, 의복을 세탁하여 드리고, 식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세심한 관찰과 기록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요점을 찾아 시설 내외를 불문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을 보며 정말 진심으로 임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보았습니다.

혜명양로원에 계시는 노인어르신들이야 말로 정말 행복하시겠구나를 떠 올리며 좀더 행복감을 드리기 위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입소어르신들이 지나온 생애를 되돌아보면 본인의지와는 관계없이 오늘의 현실에 처해졌기에 우리 모두가 이 어르신들의 문제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고 봅니다.

“외로움” 관심이 대상이 되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되며 그 점은 누구나 다 똑 같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갖는 관심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15일간의 실습기간을 마치면서 어르신들과의 함께 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노인복지 문제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저 또한 일선에서 이곳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며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부족한 저에게 성심 성의로 대해 주신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혜명한마당



### | 어르신간담회 |

격월로 입소어르신과 사무국장님의 간담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원생활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공동생활에서 지켜야할 예의 등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 | 민들레모임 외식 |

9월 13일 말벗모임인 민들레 모임에서 어르신들과 자장면 외식을 했습니다. 쟁반짜장, 만두, 탕수육을 시켜 맛있게 나눠드시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 찬불가배우기 |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은 찬불가 시간이 있습니다. 찬불가를 부르며 마음의 평온을 찾아 어르신들이 무척 좋아 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해주세요.



### | 내부공연 |

월 1회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여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7월은 고전무용, 8월은 연극, 9월은 민요 공연이 있었습니다.



### | 숲지기강지기 |

숲지기강지기에서 8월말부터 12회기로 입소어르신들과 다양한 소품을 만들었습니다. 열쇠고리, 브러치, 인형, 다기주머니 등을 만들며 솜씨자랑을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바느질을 잘하여 봉사자들이 깜짝 놀랐네요. ^^



### | 물리치료실 |

어르신들의 통증을 완화시켜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주 5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열, 전기, 초음파, 공기압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 | 영양사 |

9월28일 추석을 앞두고 입소어르신들과 맛있는 송편을 만들어 명절의 즐거움을 함께하였습니다.





# 혜명동정



## 시설개요

- 시설명 : 혜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재근 (현성큰스님)
- 정원 : 64명 (남28명/여:36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 입소대상 (무료입소)

- 입소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신청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양로원(상담 및 입소결정)

## 직원현황

- ▶ 총 17명
- 원장 1명 / 사무국장 1명 / 시설과장 1명  
간호사 1명 / 영양사 1명 / 사회복지사 1명  
생활지도원 5명 / 물리치료사 1명  
위생원 1명 / 서무 1명 / 조리원 3명

## 입소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수급자증명서
4. 건강진단서(보건소발행)
5. 증명사진 4장
6. 우리은행 통장
7. 주민등록증, 도장

## 현재 입소인원 (9월 30일 기준)

- ▶ 총 64명 (할아버지 : 28명 할머니 : 36명)



7월 16일 인천조계종사암연합회에서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용돈과 대중공연을 해주셨습니다.



10월 6일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에서 윤춘옥 간호사님이 공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2012년 7월 1일 ~ 9월 30일

이승희, 민경숙, 소미숙, 한상애, 이양숙, 황옥경(밀그림색칠화사회), 문덕녀, 박소선(대림미용실), 임호순외 6명(치과진료) 조규용, 김용기, 유만수(한방침술봉사팀), 오정은(건강체조), 백련사울림회, 오정자, 한미옥, 김동진, 차현섭, 조혜숙(아코디언), 박미란(말벗), 김동섭, 최지현, 한은옥, 남미영, 최소희, 윤정빈(우담바라), 소미숙, 김미정, 이정순, 이유정, 박계남, 정선연(민들레모임), 이강택, 임효정, 한미옥, 김남숙, 김옥심, 김영미, 황영미, 허추자(알송달송구연동화), 신숙례, 전옥선, 고준자, 박광예, 이원자, 이득남, 김영미, 이정조, 임태경(자비나눔예술봉사단), 박상근 외 4명(메아리예술공연단), 성낙권, 박종보, 손선희, 백영일, 조용대(삼운회), 김소연(행복날개수련원), 문권화, 최연옥, 김희선, 김임예, 유은주, 한수현(숲지기강지기), 오윤정, 한선정, 정다운(동일여고)

후원자

※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서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후원물품

금천푸드뱅크, 입소자 지인들, 인천조계종사암연합회, 이재임위원, 문백초등학교6-4반, 백련사, GS리테일, 금천문화원, 반야회, 민들레모임, 알송달송공연팀, 봉녕사, 마하보리사, 이부덕, 삼화양행, 이영례, 금천구의회, 서서울생활과학고, 셋별어린이집, 화사회, 자비나눔예술봉사단, 삼운회, 박미란, 숲지기강지기, 한승주, 박재근원장님, 서대문구민주평통협의회

후원금품

윤재순 90,000	박성수 90,000	최형기 30,000	권기상 150,000	문금자 30,000	구봉순 30,000
이정호 15,000	박기완 90,000	한진택 300,000	조관우 10,000	백승풍 20,000	이복자 20,000
이익인·박경애 90,000		강윤호 100,000	박혜정 30,000	양보금 30,000	안호주 600,000
마희전 20,000	안양교도소 200,000	박세진 30,000	기업은행남중지역본부 1,200,000		박동필 10,000
구수미 300,000	박두관 300,000	구충수 300,000	임옥수 300,000	황준순 15,000	황재욱 15,000
박성자 15,000	박기순 74,831	한승주 200,000	김민수 10,000	이순자 60,000	한미옥 10,000
인천조계종사암연합회 2,000,000	서울남부교도소 200,000		(주)한국거래소 600,000		



#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 자원봉사자모집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여가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 후원자모집

- 후원내용 : 현금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 빵 등)  
가전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 류

## 정성을 기다리는 후원금 계좌번호

- ① 지로번호 : 7655940
- ① 우리은행 : 1005-901-011284
- ① 예금주 : 해명양로원

##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1. 해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해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 정산 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마을 버스 1번 범일운수중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5617번 중점 하차  
신림역 5413번, 5525번 중점 하차

##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co.kr](http://www.hmtown.co.kr)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해명복지원 해명양로원

발행인 : 박 재 근(현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